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 '13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줄거리

① <소서노>/오은희 作

국토팽창정책으로 동예와의 전투를 하고 있는 정복왕 은조는 은두산성을 정복하려 가다가 안개의 휩싸인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이상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왕모”라는 말에 혼란에 휩싸이는데 그런 은조 앞에 투구를 쓴 여전사가 나타난다. 그 모습에 은조는 홀린 듯 여전사를 따라 과거 봉인된 기억의 파편 속으로 들어간다.

60년 전. 졸본부여.

순수한 소녀 소서노는 송양왕의 왕후가 될 것이라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태와 도망가서 비류와 은조를 낳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도망자의 삶을 산다. 그러나 7년 동안 집요하게 자신들을 쫓아 온 집안의 호위무사들에게 우태가 죽음을 당하고 비류와 은조 마저 생명을 위협받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졸본성 최고의 여전사이자 재력자로 거듭나게 된다. 점점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소서노는 비류와 은조를 왕재로 만들기 위해 해모수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주몽을 두 번째 남편으로 맞이하여 왕위에 앉히고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려한다.

소서노의 의도와는 달리 주몽의 친아들인 유리가 졸본에 오면서 적통자로서 고구려 제 1왕자가 되고 졸지에 후계 구도에서 몰려나게 된 은조는 소서노와 상의도 없이 주몽을 시해하려다 실패한다. 그 일을 계기로 주몽은 비류와 은조를 고구려에서 추방할 것을 소서노에게 요구한다. 아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소서노는 고구려에서의 모든 지위를 놓고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다. 오랜 전투와 방랑 생활에 지친 유민들은 정착하고자 하는 비류파와 더 많은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은조파로 갈리게 된다. 결국 소서노는 비류의 손을 들어주고 은조에게 더 이상의 정복전쟁을 그만 둘 것을 명령하지만, 은조는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소서노에 대해 살해를 지시한다.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게 된 소서노는 스스로 은조의 칼날에 뛰어들어 은조에게 성군이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그 죄책감에 더 잔혹한 정복왕이 된 은조.

다시 현재. 소서노의 호위무사 오간은 소서노의 주검을 수습하고, 긴 세월 동안 죄책감에 기억을 봉인한 채 정복의 야욕에 불타 지옥을 살고 있는 은조를 소서노의 유령 앞에 세운다. 소서노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은조는 마침내 소서노의 품 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긴 기다림 끝에 소서노의 유령과 함께 사라지는 오간. 이제 평화의 시대를 예감하는 은조만을 홀로 남긴 채.....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 '13년도 대본공모 선정작 줄거리

②<미호(美狐)>/이난영, 김은영 작

아주 오래 전... 신묘한 여우구슬을 가슴에 삼킨 채 인간이 되기 위해 천 년을 기다린 여우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우....미호!

이제 천 년의 마지막 한 해만 버티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미호에게 운명의 상대가 찾아온다. 인간 사내 강운! 천 년의 세월동안 단 한 번 찾아온 운명의 사랑 앞에, 미호는 여우여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마침내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다. 바로 인간의 아내가 되는 것! 강운에게 여우임을 들키는 순간 그녀는 가장 고통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미호는 강운을 믿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믿어줄 것이라고. 그러나 늘 동경의 마음으로 지켜봤던 인간 세상은 미호의 생각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사람들의 이기적 욕심을 지켜보면서도 미호는 강운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버린다. 하지만 가난은 현실이었다.

미호는 가난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마침내 칼날로 베는 고통을 참아내며 가슴 속에 숨겨둔 여우구슬을 꺼내 쓰기 시작한다. 하지만 비열한 사내 가신이 그녀가 여우구슬을 뱉어내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미호는 매일매일 가신의 협박 아래 여우구슬을 뱉어내게 된다.

점점 병약해져 가는 미호, 하지만 인간들은 그녀에게서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어가려 할 뿐이다. 그런 미호를 보며 여우 여왕은 미호를 다시 여우무리로 돌아오라 회유하지만 미호는 끝내 인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가신이 여우구슬 협박도 모자라 미호를 성적으로 유린하려 하자 미호는 발톱을 드러내 가신의 목을 찌른다. 한편 미호를 의심해서 뒤를 밟던 강운은 이를 목격하게 된다. 강운은 미호와의 약속을 깬 것으로도 부족해, 미호를 배신한다. 여우 여왕은 비열한 인간들을 비난하며 강운을 죽여 미호를 살리려 하는데, 그 순간 미호는 자신의 보호자였던 여우 여왕 매구를 죽이고, 스스로 죽어간다. 강운은 뒤늦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오열한다.